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으로 한눈에”

美 액티언 “이글로벌시스템과 협력 고객 분석 정확도 향상·시간 단축” 편의성 높은 솔루션으로 국내 공략

미국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액티언이 빅데이터 분석 통합플랫폼으로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스티브 사인 액티언 사장은 1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첨단기술을 잘 빠르게 도입하는 한국은 빅데이터와 관련해 연간 10억달러 규모 시장을 창출할 진정한 혁신국가”라며 “강력한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글로벌시스템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티언은 지난해 데이터웨어하우스(DW) 솔루션인 벡터(벡터와이즈)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글로벌시스템과 손잡았다.

액티언은 그 이후 빅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인 퍼베이시브와 파엑셀을 차례로 인수합병(M&A)해 자체 솔루션인 벡터에 매트릭스(엡 파엑셀)와 데이터플로를 결합한 통합플랫폼을 완성했다.

통합플랫폼은 단순 구조화한 데이터는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 비구조화한 데이터를 모두 연결해 정제·분석할 수 있다.

특히 벡터는 표준 ANSI SQL을 지원해 데이터 마트 구축 시 쿼리 등을 설계·구축하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DW다.

데이터플로는 상용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과 하둡에서 데이터를 끌어와 구동하는



스티브 사인 액티언 사장이 빅데이터 분석 통합플랫폼을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관 솔루션으로 데이터 분석결과를 드래그 앤드 드롭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인 사장은 “최근 기업은 과거처럼 제품군이나 고객군 같은 어립치를 낸 평균값보다는 개인 한 명의 특징을 파악해 어떤 제품을 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원한다”며 “액티언의 통합 플랫폼은 한 개인 고객의 과거 인터넷 사용 이력과 클릭 성향을 분석해 어떤 구매로 이어질 지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사용자가 포털사이트에서 항공편을 검색할 때 과거 검색이력과 클릭 등을 매칭해

가장 적합한 검색결과나 광고를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기 전에 노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속도와 정확한 고객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데이터를 발견해 이해하고 업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시간을 경쟁사보다 단축시켜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액티언은 국내시장에서 데이터가 풍부하고 잘 활용하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유통·전자상거래·은행·보험·정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

씨이랩, 日 빅데이터 시장 진출

현지법인 설립·광고대행사 협력 타깃 마케팅 앱 ‘구피’ 베타서비스도

토종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전문기업인 씨이랩(대표 이우영)은 일본 도쿄에 현지법인인 씨이랩 재팬을 설립하고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19일 밝혔다. 씨이랩재팬은 현지 광고대행사와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진행하는 등 소셜네트워크 기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한 현지 비즈니스를 추진한다.

또 타깃 마케팅 앱인 ‘구피’ 서비스에도 나선다. 씨이랩은 현지 마케팅과 마케팅기획 및 운영 자금 조달 등 업무를 수행할 현지 임직원 세 명을

영업했다. 일본어 버전으로 변환한 ‘구피’ 베타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구피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중소 상인에게 방문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 SNS와 행동패턴을 분석해 매월 추천 고객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 고객에게는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보낼 수도 있다.

이우영 사장은 “일본 H통신과 진행 중인 구피 재판매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은 카피 라이선스를 인정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데다 초도계약 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동반성장 R&D 지원 과제 접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정택)이 대기업 판매 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연구개발(R&D) 사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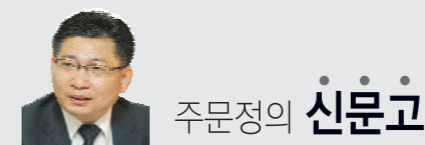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CJ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우수 제안과제에 과제당 연간 2억원 내의 R&D 비용을 지원하고 CJ가 성공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CJ

는 선정된 과제의 기술개발부터 마케팅과 유통 단계까지 지원한다.

대상 과제는 오는 6월 12일까지 신청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경기과기원은 21일 오후 2시부터 경기중소기업진흥지원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정부가 SW를 직접 만들고 배포?



주문정의 신문고

좀 된 이야기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한 솔루션 기업 A 사장이 인쇄업을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화제가 자연스럽게 기업 경영으로 흘렀습니다.

A 사장이 ‘정부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산업 지원 정책에 아쉬운 점이 많다’고 푸념했습니다. 맞장구를 예상한 A 사장은 친구의 “배부른 소리”라는 한 마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IT 분야는 정부에서 관심이라도 갖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쇄업은 꿈조차 꾸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인쇄업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하루아침에도 없어지는 기업이 부지기수입니다. 그야말로 경쟁력 없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무서운 정글세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IT·SW 분야도 정부 도움 없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때’라는 거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

만 기존 지원정책이라도 기업 환경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전자신문이 시리즈(실종된 SW산업 육성정책)로도 지적했지만 정부 SW육성정책과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합니다.

SW산업을 육성한다면서 되레 시장을 망치는 역할을 정부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룹웨어 가운데 레퍼런스가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 업무처리 전산화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한 일은 SW를 직접 만들어 뿌린 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룹웨어 기업은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정부가 SW 보급확산 등을 내걸고 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저가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했습니다.

SW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생태계를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독이 되서는 안 됩니다.

SW산업을 살리려면 정부부터 SW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산을 줄이려고 직접 만들어 보급하는 일은 산업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THz 대역 강도 측정 파워미터 출시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반도체 테스트장비 전문기업인 아드반테스트코리아(대표 최석균·아라이 다카유키)는 일본 아드반테스트가 개발한 테라헤르츠 파워미터 신제품 ‘TAS 5500·사진’을 내달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TAS 5500은 파동에 물질에 흡수될 때 발생하는 열을 감지해 테라헤르츠 대역 주파수 파동의 강도를 계산해주는 측정장비다. 입력전력을 ±8%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측정 정확도는 일본의 국가표준에 기반을 둔 적외선 전력측정과 테라헤르츠 대역 분석장비를 개발하면서 실측자료를 토대로 재교정해 구



현했다.

이 제품은 크기 115×67×79mm, 무게가 900g에 불과해 들고다니며 사용할 수 있다. USB포트로 PC에 연결해 사용하면 된다. 대당 가격은 180만엔(약 1800만원)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와치텍 ‘와치올’ SK C&C에 공급

통합운영관리솔루션 전문기업인 와치텍(대표 박권재)은 SK C&C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와치올 네트워크 매니저·사진’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NMS는 네트워크 성능을 실시간으로 조회,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 발생을 감지해 관리자 PC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관제솔루션이다.

네트워크 장비 통합관리와 관제에 용이하다. 특히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주고 네트워크 관리로 처리속도를 개선할 수도 있다.

이 제품은 SK C&C가 오는 7월까지 진행하는 ‘통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용으로 사용된다.



와치텍은 이를 위해 와치올 네트워크 매니저를 SK C&C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맞춤형으로 기능을 보강해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 중에 필요로 하는 기능도 추가해 주기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일년에 단 한번, 세상에 딱 하나,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게임’ 체험, ‘굿게임쇼 코리아 2014’

GOOD GAME

SHOW KOREA 2014

굿게임쇼 코리아 2014

2014. 5. 23(금) ~ 25(일) KINTEX 제2전시장 10홀

16개국 300여 개의 다양한 교육용 게임, 융합형 게임, 스포츠 게임, 3D 게임, 그리고 119어린이 재난대비 체험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